

## 코로나19 이후 여성노동시장의 특징과 시사점

2023. 12. 7

성인지데이터센터 정성미 연구위원

- 1) 2023년(1~10월)은 여성 중심으로 노동시장 주요지표 개선
  - 2022년 하반기 이후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며 고용률 등 전반적인 주요 노동시장 지표가 양호했는데 이는 대부분 여성에서의 개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2) 최근 25~44세 여성 고용률 상승은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특히 30~34세는 추가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혼 및 독립의 증가, 자녀감소의 영향이 주도적 역할을 함
  - 2000~2015년 정도까지는 미혼증가, 만혼, 자녀출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경력단절 저점이 30세에서 뒤로 밀리다가 이제는 미혼의 증가와 더불어 만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
  
- 3) 미혼과 무자녀 여성이 증가하는 경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 유럽 국가에서도 무자녀 여성 비중 높지만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다자녀출산+노동시장활동이 가능하기 때문
  - 이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대표적 제도인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노력과 함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다층적 종합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출산 후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재가돌봄(가정보육)+공공돌봄+사회적돌봄(육아휴직 등)이 결합되어 다층적으로 지원될 때 가능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경력유지에 어려움이 발생 (정성미, 2022)
  - 출산 이후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추동이 필요

# I. 최근 여성 노동시장 동향

## 여성 중심으로 노동시장 주요지표 개선

- 2023년(1~10월)은 노동시장의 회복세가 지속되며 고용률 등 전반적인 주요 노동시장 지표가 양호했는데 이는 대부분 여성에서의 개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 2023년(1~10월) 인구증가율은 남성(0.4%)보다 여성(0.2%)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자 증가율(2.6%)이 남성(0.2%)을 크게 상회
  - 여성은 활발하게 경제활동참가를 해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한 반면 남성은 비경제활동인구 증가가 두드러진 특징이 있음
  - [그림 2]를 보면, 2022년 1~10월 취업자 증감에 여성과 남성이 유사한 규모와 흐름을 보이다 11월 이후 여성 취업자 증가폭이 남성을 크게 상회하였고, 이후 여성의 꾸준한 취업자 증가가 지속된 반면, 남성은 2022년 10월 이후 하락흐름을 지속함

[그림 1] 성별 인구, 취업자, 비경활 증가율(1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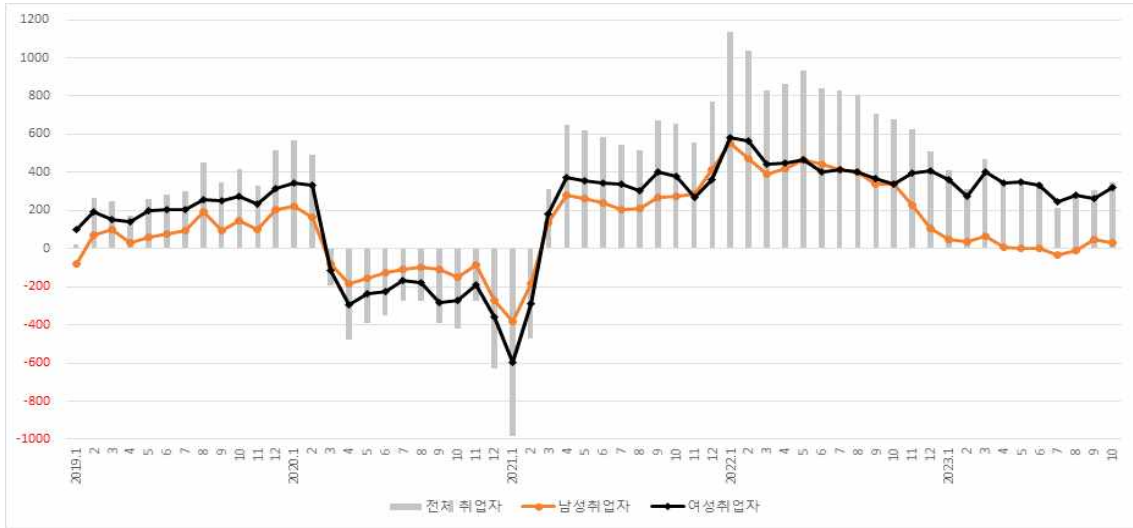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2] 성별 고용률 증감 추이(15세 이상)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3] 성별 실업률 증가율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여성 중심의 취업자 증가가 두드러지는 2023년 상황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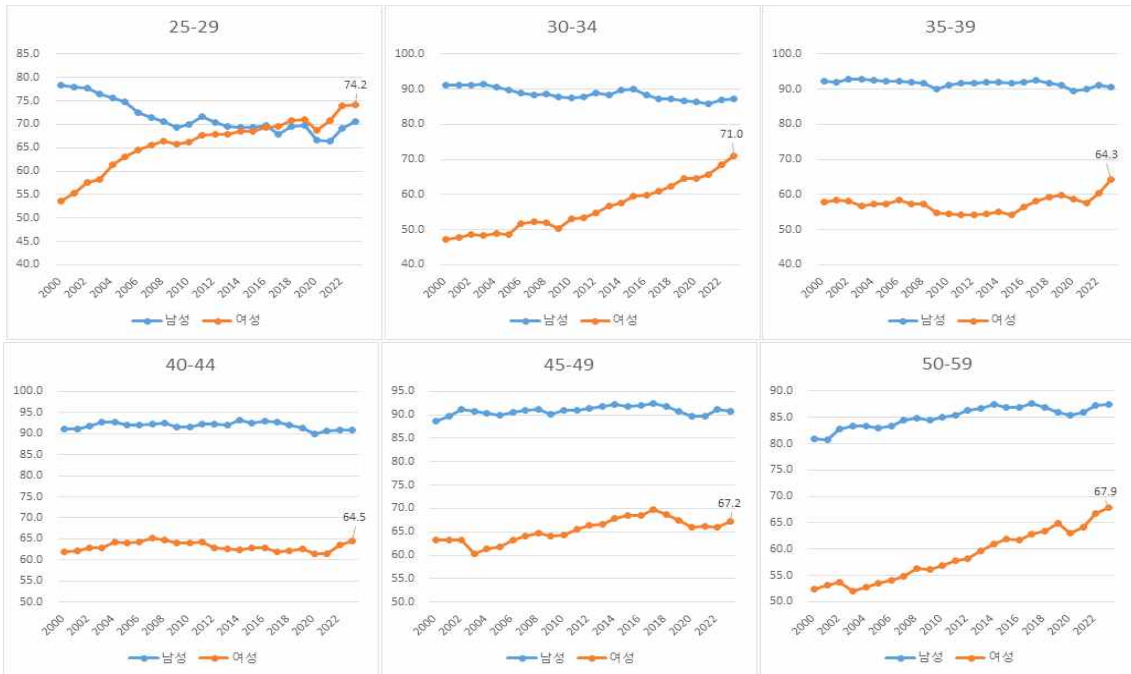
## II. 여성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추세 지속될까

코로나19 이후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30대 여성 고용률 증가가 주목할만함.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를 동반해 지속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

- [그림 4] 5세대위 연령별 고용률 추이를 보면, 25~34세 여성고용률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빠르게 증가하는 중
  - 여성 20대 후반은 2016년 남성을 추월했고, 2020년 하락 이후 증가로 전환하여 2023년(1~10월) 74.2%
  - 여성 30대 초반은 2000년 이후 가파른 증가추세를 지속하며 2023년(1~10월) 71.0%로 역시 역대 최고 수준
  
- 여성 35~44세는 장기간의 정체 및 하락국면을 벗어나 경력단절 저점지점(60%)에서 상향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40대 후반은 저점을 다지는 모습
  - 여성 30대 후반은 2000~2015년 장기간 완만한 하락과 정체를 지속하다 2016년 기점으로 증가했고, 코로나19 시기 약간 하락했지만 2021년 이후 증가로 전환함. 최근 가장 급격한 증가를 하며 2023년(1~10월) 64.3%로 최고수준의 고용률을 기록
  - 40대 초반은 2008~2020년 완만하게 하락하며 약 5%p 고용률이 감소하다 2021년 이후 증가로 전환해 올해 들어 2008년 고용률 수준에 근접한 한편, 40대 후반은 2003~2017년 증가추세를 지속하다 2018~2020년 하락, 2023년 소폭 상승함
  - 40대 초반은 5%p 빠지는데 10년 넘게 걸린 반면 40대 후반은 불과 4년 만에 하락을 마치고 저점을 다지는 모습
  
- 50대는 2003년 이후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증가를 지속

[그림 4] 성별·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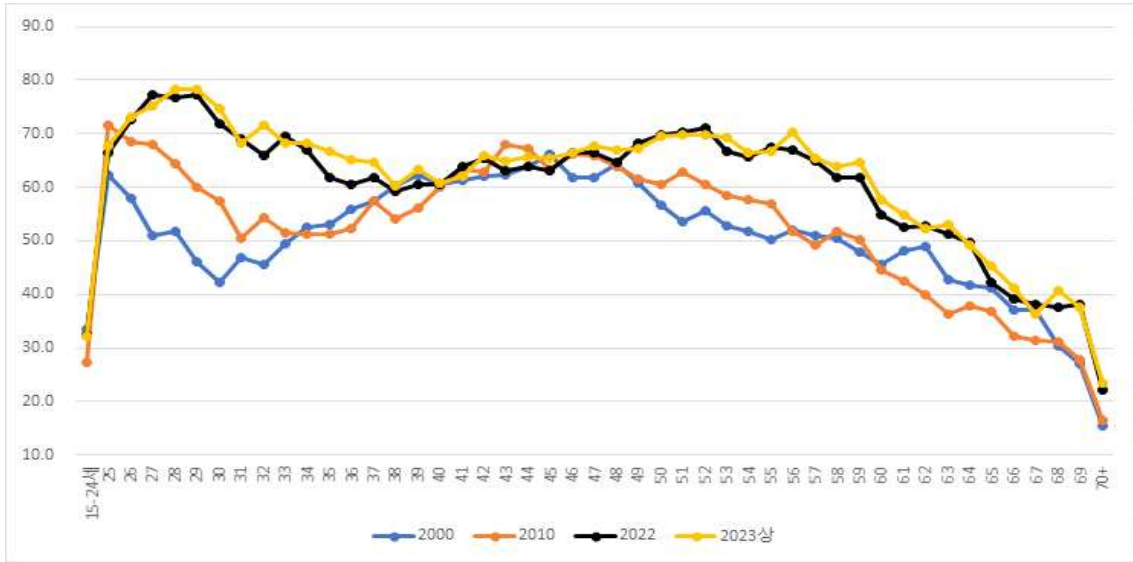


주 : 가장 최근수치는 2023년 1~10월 평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30대 고용률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여성의 M커프 곡선이 다소 완만하게 변화했지만 2010년 이래 37~44세의 고용률 부진은 개선되지 못하고 낮은 수준(60%)을 지속함
  - 고용률 저점이 2000년 30세에서 2022년 39세로 약 10세 이동, 저점 수준은 42%에서 60%로 약 20%p 증가

[그림 5] 여성의 연령별 고용률(2000, 2010, 2022, 2023 상반기)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최근의 경향을 보면, 2022년 하반기 이후 고용률 증감은 30대 여성에서 가장 컸고, 특히 30대 후반이 가장 컸음

-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 고용률이 2023년(1~10월) 증가했지만, 특히 25~39세 여성 고용률이 꾸준하게 증가하였고, 30~34세와 35~39세에서 큰 폭으로 증가
  - 30~34세 고용률은 2023년(1~10월) 70%를 넘어섰고, 35~39세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큰 증가 폭(4.3%p)을 보임
  - 이러한 변화가 장기추세에서 나타나는 지속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일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세분석을 실시함

〈표 1〉 성별 연령계층별 고용률

(단위: %, %p)

		15-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9	60+
여성									
1~10월 고용률	2020	28.3	68.7	64.5	58.5	61.4	66.0	63.1	33.9
	2021	30.9	70.5	65.5	57.3	61.3	66.3	64.0	34.2
	2022	33.0	73.9	68.2	60.0	63.4	65.8	66.7	35.2
	2023	32.1	74.2	71.0	64.3	64.5	67.2	67.9	36.9
증감	2020 대비	3.8	5.5	6.5	5.9	3.1	1.2	4.8	3.1
	2022 대비	-0.9	0.3	2.8	4.3	1.1	1.4	1.3	1.7
남성									
1~10월 고용률	2020	22.1	66.7	86.5	89.6	90.1	89.6	85.4	52.9
	2021	22.8	66.0	85.5	90.0	90.6	89.6	85.7	53.4
	2022	24.7	69.0	87.1	91.2	90.9	91.2	87.3	55.7
	2023	23.8	70.6	87.2	90.7	90.7	90.8	87.5	56.0
증감	2020 대비	1.7	3.9	0.7	1.0	0.6	1.2	2.0	3.1
	2022 대비	-1.0	1.5	0.1	-0.6	-0.2	-0.4	0.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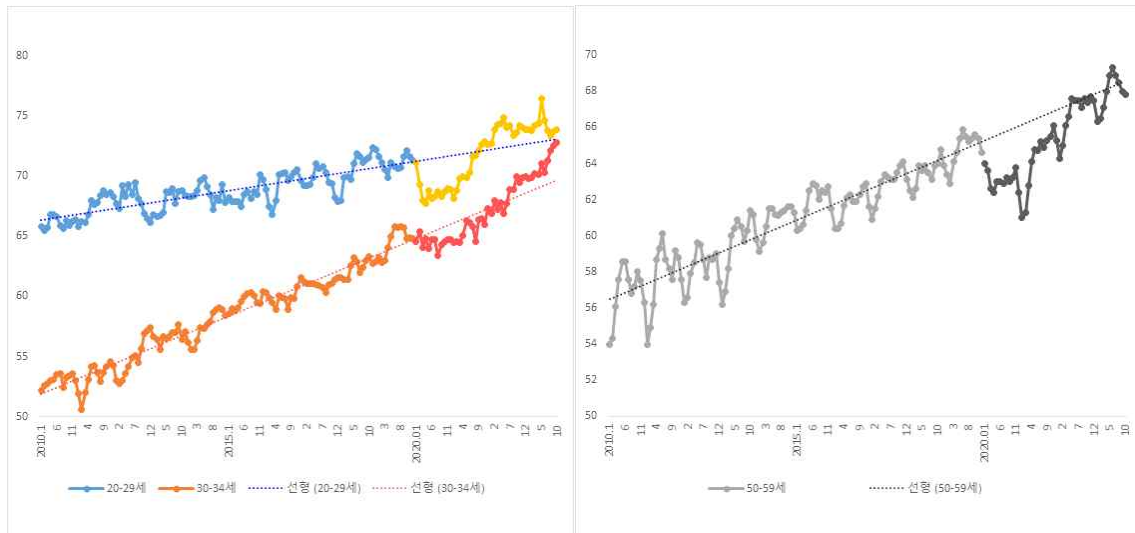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0년 이후 장기적 흐름에서 25~29세, 30~34세와 50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는데, 최근의 고용률 증가는 코로나19 이전의 추세를 회복하는 흐름에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25~34세는 추세를 벗어나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그림 6]을 보면, 20대 초반과 50대 여성 고용률은 코로나19 이전 증가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0~34세는 추세를 넘어서는 증가를 하고 있어 향후 고용률이 지금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19 침체를 완전히 벗어나 추세 복귀된 것으로 보임
  
- 한편 35~39세와 40~44세의 최근 고용률 증가 역시 2016~2017년 이후 추세를 회복하며 코로나19 침체를 벗어나 추세로 복귀된 현상으로, 기존 추세를 따라 잡은 것으로 보임
  - 35~39세는 2015년까지 추세와 2016년 이후 추세가 바뀌면서 고용률 상승 국면을 이어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률이 둔화된 흐름이 최근에야 개선됨
  - 40~44세는 2016년까지는 고용률이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고, 이 연령층도 코로나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 기존 추세를 따라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경력단절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연령층의 여성 고용률 증가가 어떠한 요인에 의한 증가인지 추가분석을 통해 자녀의 영향력 등을 확인해보도록 함

[그림 6] 25~29세, 30~34세, 50대의 여성 고용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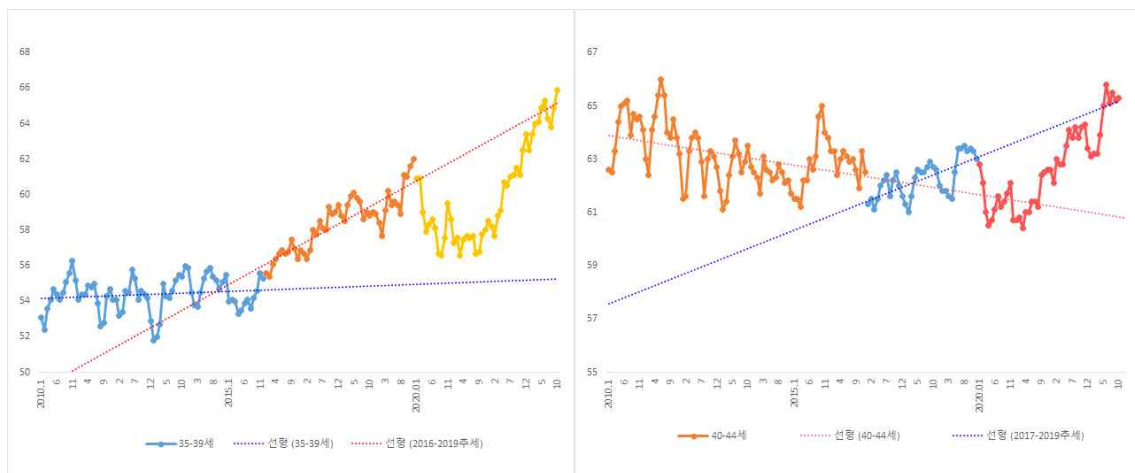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7] 35~39세, 40~44세 여성 고용률 추세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5~44세 여성의 취업확률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여성의 고용률에 부정적인 영향은 여전하지만 그 영향력이 과거보다 약해진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특히 미취학자녀(0~6세)가 있으면 취업확률이 2016년 24.2% 낮았고 2022년 20.7% 낮게 나타남
  - 여전히 미취학자녀가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
  - 2022년 초등저학년도 취업확률을 7.8%, 초등고학년도 취업확률은 1.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 보다는 영향력이 약해짐
  - 반면 중고등학년은 여성의 취업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미취학 자녀와 초등기 자녀가 있는 여성에 정책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표 2〉 자녀가 여성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25~44세)

	2016		2022	
	추정계수	로버스트표준오차	추정계수	로버스트표준오차
0-6세자녀	<b>-0.242</b>	(0.006) ***	<b>-0.207</b>	(0.007) ***
초등저학년	<b>-0.097</b>	(0.008) ***	<b>-0.078</b>	(0.009) ***
초등고학년	<b>-0.051</b>	(0.009) ***	<b>-0.014</b>	(0.009) *
중고등학년	<b>0.015</b>	(0.009) **	<b>0.041</b>	(0.011) ***

주 : 가구주, 배우자유무, 지역, 학력(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 대학원이상), 연령을 통제하고, 선형확률모형으로 추정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부가조사」, 각 연도

25~44세 여성 고용률 변화에 자녀 영향을 분석한 결과<sup>1)</sup>, 2016년~2022년 고용률 4.52%p 증가는 미취학자녀(0~6세)가 있는 여성의 비중감소(1.32%p, 29.1%를 설명)+가구주 증가(0.87%p)+미혼증가(0.89%p)+고학력증가(0.7%p)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취업성향의 증가가 약 21.5%를 설명

-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25~29세와 30~34세의 고용률 증가를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 감소+가구주증가(독립)+미혼증가가 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그 외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 증가가 영향을 미침
  - 25~29세 고용률 변화에는 취업성향이 33.0%, 30~34세는 27.4% 영향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즉 25~34세 고용률 증가에는 미혼(만혼), 저출산 영향이 매우 컸지만, 취업성향 자체도 증가한 영향으로 나타남

1) 서로 다른 두 집단의 차이를 설명변수의 차이에 의해 기인한 부분과 설명변수의 계수 차이에 기인한 부분으로 분해하는 Oaxaca-Blinder 분해방식을 적용함. 설명변수의 차이에 의한 부분은 각 변수의 분포변화로 설명할 수 있으나, 계수차이에 의한 부분은 설명되지 않는 요인으로 통상 개인의 의지나 인식, 성향 등이 반영된 내용으로 볼 수 있음. 본 분석에서는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해석함

○ 반면 35~39세 고용률 증가(2.69%p)는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감소가 34.2%를 설명하고 가구 증가(33.3), 미혼(21.1%), 고학력(24.6%) 영향이 대부분을 설명하는 반면, 취업성향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30대 후반의 이러한 결과는 취업성향은 감소하는데 분포변화가 매우 커서 나타난 효과로 볼 수 있음. 즉 다른 조건이 같다면 고용률이 떨어져야하는데 자녀가 없는 여성의 증가영향, 미혼 증가 등 분포효과로 고용률이 증가한 셈임
- 40~44세는 고용률이 감소(-0.22%p)했으며, 특히 취업성향이 감소(-0.20%p)가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각 집단별 고용률 증가에는 미혼증가, 자녀 감소, 독립, 고학력 영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고, 성향변화로는 20대 후반이 약 33%, 30대 초반이 27.4%만 영향을 미쳤고, 35~44세는 취업성향이 감소함

〈표 3〉 자녀가 여성 고용률 증가에 미치는 영향(25~44세)

	25-4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016 고용률(%)	61.3		68.0		58.9		56.4		63.0
2022 고용률(%)	65.9		74.4		67.8		59.1		62.8	
격차(%p)	<b>4.52</b>		<b>6.40</b>		<b>8.85</b>		<b>2.69</b>		<b>-0.22</b>	
설명요인	<b>3.55</b>	(78.5%)	<b>4.29</b>	(67.0%)	<b>6.42</b>	(72.6%)	<b>2.95</b>	(109.7%)	<b>-0.02</b>	(10.7%)
미취학자녀	<b>1.32</b>	(29.1%)	<b>1.92</b>	(30.0%)	<b>3.20</b>	(36.1%)	<b>0.92</b>	(34.2%)	<b>-0.76</b>	(344.1%)
초등저학년	<b>-0.09</b>	-(2.0%)	<b>0.00</b>	(0.0%)	<b>-0.01</b>	-(0.1%)	<b>0.04</b>	(1.5%)	<b>-0.51</b>	(230.8%)
초등고학년	<b>0.00</b>	(0.1%)	<b>0.00</b>	(0.0%)	<b>-0.02</b>	-(0.2%)	<b>0.00</b>	(0.0%)	<b>-0.02</b>	(7.9%)
중고등학교	<b>-0.16</b>	-(3.5%)	<b>0.00</b>	(0.0%)	<b>-0.01</b>	-(0.1%)	<b>-0.06</b>	-(2.3%)	<b>-0.26</b>	(119.0%)
가구주	<b>0.87</b>	(19.2%)	<b>1.00</b>	(15.6%)	<b>1.10</b>	(12.4%)	<b>0.90</b>	(33.3%)	<b>0.43</b>	-(192.1%)
혼인여부	<b>0.89</b>	(19.8%)	<b>1.19</b>	(18.5%)	<b>1.39</b>	(15.7%)	<b>0.57</b>	(21.1%)	<b>0.01</b>	-(4.6%)
지역	<b>0.06</b>	(1.3%)	<b>0.11</b>	(1.8%)	<b>0.18</b>	(2.1%)	<b>0.03</b>	(1.3%)	<b>-0.02</b>	(9.8%)
학력	<b>0.70</b>	(15.5%)	<b>-0.02</b>	-(0.4%)	<b>0.60</b>	(6.8%)	<b>0.66</b>	(24.6%)	<b>1.07</b>	-(481.7%)
연령	-0.05	-(1.1%)	0.09	(1.5%)	-0.02	-(0.2%)	-0.11	-(4.0%)	0.05	-(22.5%)
설명되지 않은 요인	<b>0.97</b>	(21.5%)	<b>2.11</b>	(33.0%)	<b>2.43</b>	(27.4%)	<b>-0.26</b>	-(9.7%)	<b>-0.20</b>	(89.4%)

주 : 설명변수는 자녀유무(0~6세, 7~9세, 10~12세, 13~18세), 가구주, 배우자유무, 지역, 학력(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학, 대학원이상), 연령을 포함하였고, Blinder-Oaxaca 분해방식을 적용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부가조사」, 각 연도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25~34세 여성 고용률 변화와 35~44세 변화 트렌트에 차이가 나타남

- 정리하면, 25~34세 여성 고용률은 2010년 이후 추세 위에서 증가를 하고 있으며 이는 미혼 및 자녀감소, 독립의 영향과 함께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의 변화가 동반되고 있어 향후 기존 추세를 넘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35~44세는 코로나19 이전 3~4년 추세를 따라잡은 것으로 보이거나 이러한 추세가 바뀐 것은 미혼증가, 자녀감소, 독립의 증가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음.
  - 여성의 M커브 저점이 빠르게 높아지는 이유는 최근의 경향이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3~4년전인 2016년부터 바뀐 추세인데, 이 원인이 바로 미혼증가, 자녀감소, 독립의 증가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이러한 결과는 M커브 저점 연령대가 30대 후반으로 상승한 트렌드의 원인이 최근 달라지는 것으로 평가

- 2000~2015년정도까지는 미혼증가, 만혼, 자녀출산시기가 늦춰지면서 경력단절 저점이 30세에서 뒤로 밀리다가 이제는 그런 국면을 넘어서 경력단절 저점이 상승하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은 미혼의 증가와 더불어 만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한다고 볼 수 있음
  - 즉 결혼과 출산이 "늦춰지는" 수준을 넘어 "안하는" 비중 증가가 경력단절 고용률 저점을 높이는 트렌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지독한 저출산이 동반되어야 여성 노동시장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 출산 이후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추동이 필요하며 과감한 접근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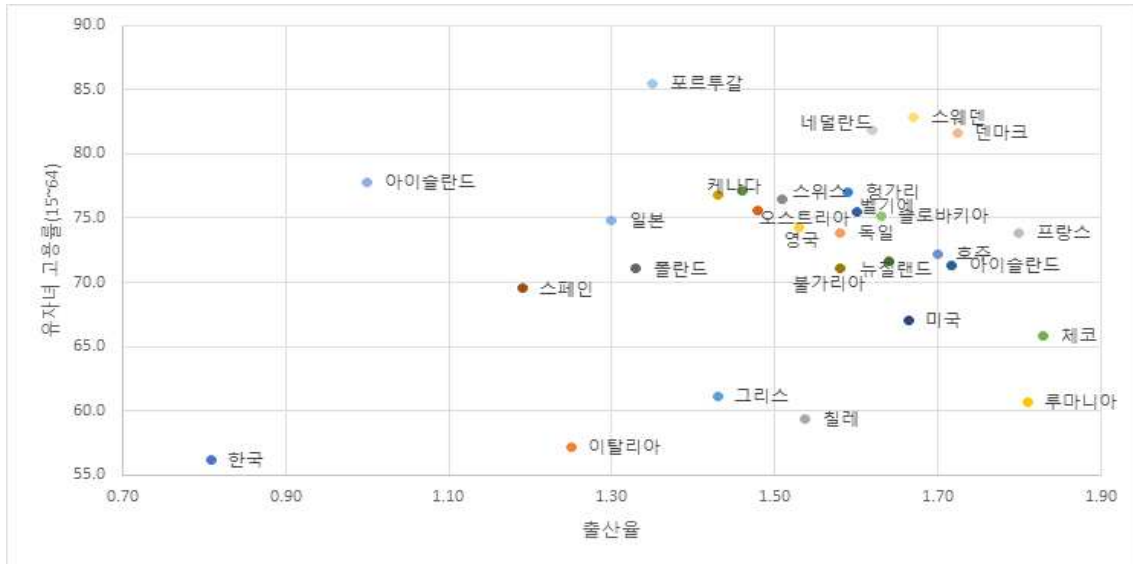
### Ⅲ. 여성의 출산과 고용

우리나라 출산율 급격하게 감소해 2022년 0.78, 특히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출산율도 낮고, 유자녀 고용률도 매우 낮음

- 유사한 고용률 수준을 보이는 이탈리아에 비해 출산율 낮음

[그림 9] OECD 국가의 유자녀 여성고용률과 출산율 관계(202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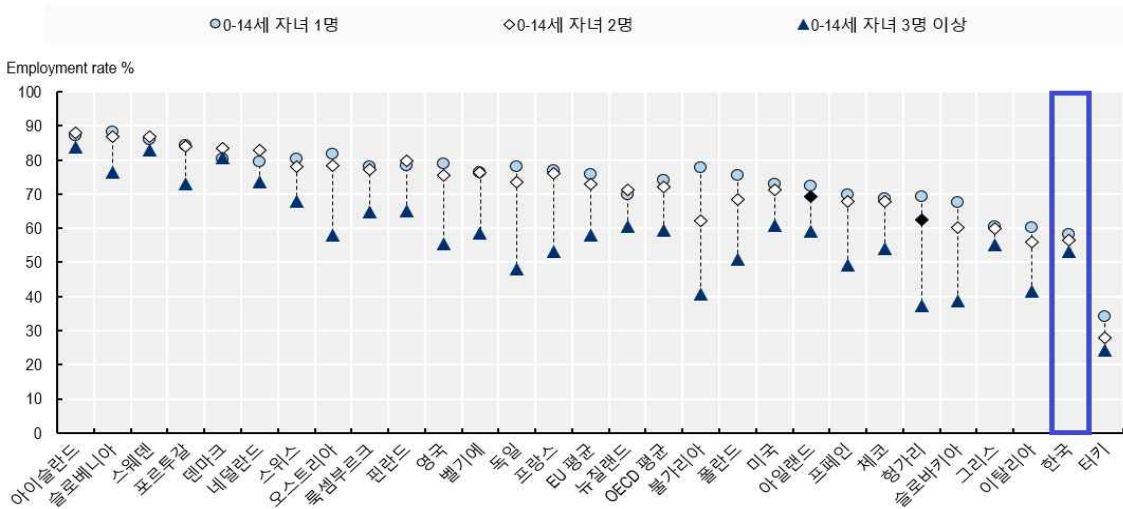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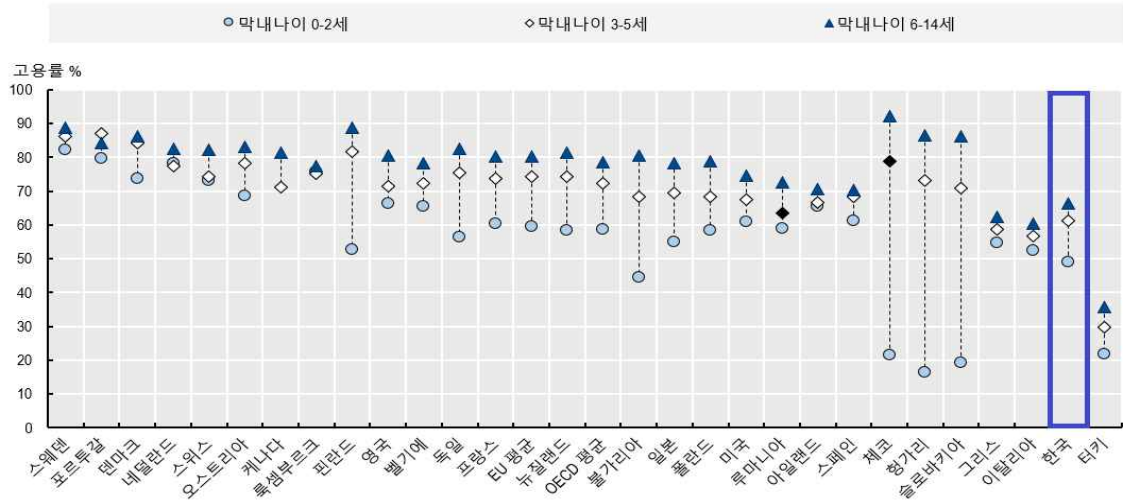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 OECD 주요국은 어린 자녀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낮지 않으며, 자녀 3세이상이면 대부분 70% 이상 수준이고, 자녀수가 많다고 고용률이 낮은 것은 아님
  - 즉 출산율과 자녀나이, 자녀 수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우리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그림 10] OECD 주요 국가의 막내자녀 나이, 수에 따른 15~64세 여성 고용률(2019)

(단위: %)



주: 1) 한국은 15~54세 기혼여성, 일본은 15세 이상 여성이 대상이며, 한국, 미국, 캐나다는 0~17세 자녀가 있는 여성임.  
 2) 자녀 나이 범주는 한국은 0~6세, 7~12세, 13~17세이고 캐나다는 0~5세, 6~17세, 미국 0~2세, 3~5세, 6~17세임.  
 3) 일본은 2018년, 터키는 2013년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기본적인 저출산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함께 추가출산이 가능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함. 즉 자녀를 낳고, 1명 기르면서 일-생활을 해보니 더 낳아도 괜찮겠다라는 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가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거나, 무자녀가 1자녀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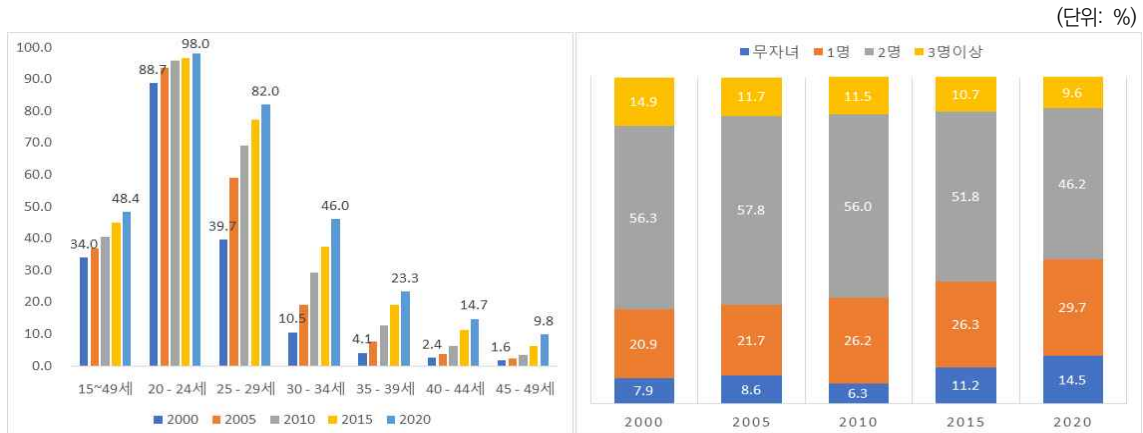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데는 크게 3가지 영향이 작용함 : ① 미혼율 증가, ② 기혼 무자녀 여성 증가, ③ 2명 이상 다자녀 여성 감소

- [그림 11] 왼쪽 그림을 보면, 2000년 이후 미혼율 급격하게 증가해 15~49세의 48.4%가 미혼이고, 특히 20대 후반의 82%, 30대 초반의 46%가 미혼상태임
-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율 수준 낮아짐

- [그림 11] 오른쪽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구성비를 보면 무자녀 여성 비중이 2000년 7.9%에서 2020년 14.5%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1자녀 비중은 20.9%에서 29.7%로 증가함

- 반면 2자녀 비중은 56.3%에서 46.2%로 빠르게 감소했고, 3자녀이상 비중도 14.9%에서 9.6%로 감소

[그림 11] 연령별 미혼률(좌)과 15~49세 기혼여성의 자녀수별 구성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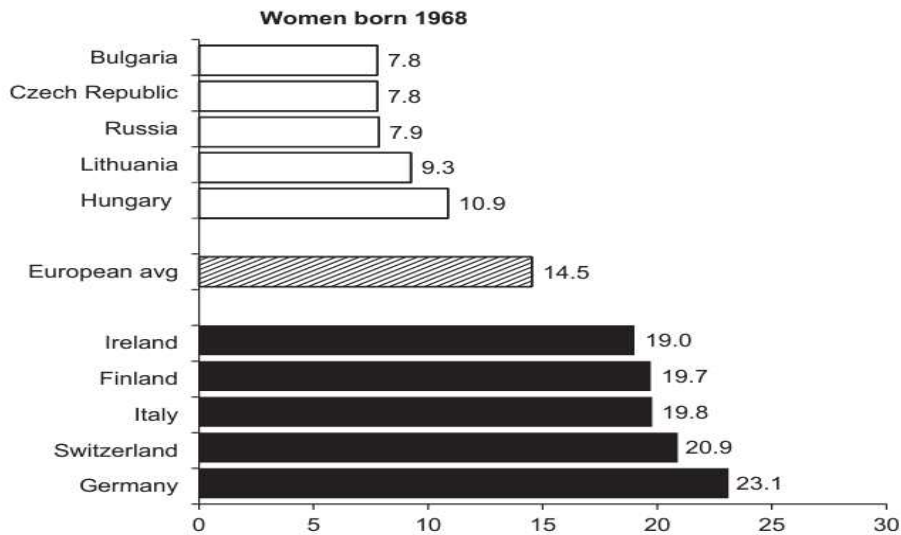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 출산율과 고용률이 높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무자녀 비중은 높은편으로, 무자녀 여성의 증가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님

- 1968년생 여성을 중심으로 무자녀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독일, 스위스 무자녀 비중 20%를 상회하고 핀란드도 19.7%로 높음

[그림 12] 유럽국가의 무자녀 여성 비중(1968년 생 기준)

(단위: %)



자료 : Tomáš Sobotka(2017), Childlessness in Europe: Reconstructing Long-Term Trends Among Women Born in 1900-1972, p37.

- 문제는 출산한 여성 중 자녀를 한 명만 낳는 비중이 매우 높고 3자녀 이상인 여성 비중이 매우 낮은 것임
  
- 자녀가 있는 여성 중 자녀수 분포를 OECD 주요국과 비교분석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자녀 1명 출생비율 56.8%로 가장 높고 3명 이상 비중은 8.2%로 가장 낮은 국가임
  - 출산율도 높고,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3명 이상 출생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음. 즉 다자녀+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
  - 고용률을 높이며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향을 위해서는 추가출산(2명 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 필요함
  - 둘째 이상 자녀가 있으면서 노동시장 참여하는 여성을 집중하여 지원강화가 필요
  - 즉 저출산 정책은 자녀를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낳을 수 있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동시장 정책은 다자녀 근로자가 자녀돌봄과 노동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임

〈표 4〉 OECD 주요국의 유자녀 여성의 자녀수 분포(2021)

	1명출생	2명출생	3명이상	출산율	유자녀1) 고용률(15-64세)
한국	56.8	35.0	8.2	0.81	56.2
스페인	49.9	36.2	13.9	1.19	69.5
이탈리아	46.6	38.5	14.9	1.25	57.2
일본				1.30	74.8
폴란드	44.2	34.3	21.5	1.33	71.0
포르투갈	53.0	33.9	13.1	1.35	85.5
리투아니아	43.7	39.7	16.6	1.36	79.3
룩셈부르크	53.2	34.1	12.7	1.38	78.0
그리스	45.8	38.7	15.6	1.43	61.2
핀란드	42.3	33.9	23.8	1.46	77.1
노르웨이	42.8	38.4	18.8	1.48	71.7
오스트리아	47.6	35.5	16.9	1.48	75.6
스위스	47.6	37.4	15.0	1.51	76.5
영국	42.7	35.0	22.3	1.53	74.2
라트비아	38.2	37.6	24.2	1.57	75.6
독일	46.1	35.6	18.3	1.58	73.8
불가리아	49.5	37.6	12.9	1.58	71.1
크로아티아	44.2	34.8	21.0	1.58	77.8
헝가리	45.7	32.9	21.4	1.59	77.0
벨기에	44.0	35.1	20.9	1.60	75.5
에스토니아	37.2	35.9	26.9	1.61	75.2
네덜란드	45.4	36.3	18.2	1.62	81.8
슬로바키아	43.5	36.1	20.4	1.63	75.2
슬로베니아	45.1	39.4	15.5	1.64	87.0
미국				1.66	67.1
스웨덴	41.7	37.6	20.7	1.67	82.9
튀르키예	37.2	32.0	30.8	1.70	30.0
호주				1.70	72.2
아이슬란드	40.0	36.2	23.8	1.72	71.3
덴마크	43.9	39.5	16.6	1.72	81.6
프랑스	41.4	35.6	23.0	1.80	73.9
루마니아	52.4	30.3	17.3	1.81	60.7
아일랜드	38.7	34.8	26.5	1.82	77.8
체코	46.4	39.0	14.6	1.83	65.8

주 : 1) 0-14세 자녀가 있는 15~64세 여성 고용률임.

자료 : OECD, OECD Family Database



## IV. 요약 및 시사점

최근 25~44세 여성 고용률 상승은 코로나19 이전 추세를 회복한 것으로 특히 30~34세는 추가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미혼 및 독립의 증가, 자녀감소의 영향이 주도적 역할을 함

- 2000~2015년 정도까지는 미혼증가, 만혼, 자녀출산 시기가 늦춰지면서 경력단절 저점이 30세에서 뒤로 밀리다가 이제는 미혼의 증가와 더불어 만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
  - 즉 결혼과 출산이 "늦춰지는" 수준을 넘어 "안하는" 비중 증가가 경력단절 고용률 저점을 높이는 트렌드로 전환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지독한 저출산이 동반되어야 여성 노동시장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미혼과 무자녀 여성이 증가하는 경향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님. 유럽 국가에서도 무자녀 여성 비중 높은지만 출산율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다자녀출산+노동시장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임.

- 이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일-가정 양립 지원의 대표적 제도인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활성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의 노력과 함께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다층적 종합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 출산 후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재가돌봄(가정보육)+공공돌봄+사회적돌봄(육아휴직 등)이 결합되어 다층적으로 지원될 때 가능하며, 이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경력유지에 어려움이 발생(정성미, 2022)
  - 출산 이후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추동이 필요하며 과감한 접근도 고려해야 함

## 참고문헌

정성미 외(2022), 여성의 취업형태 및 근무유연성이 경력유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